

조미관계의 새 역사를 개척한 세기적 만남

력사상 첫 조미수뇌상봉과 회담 진행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원수님께서 미합중국 대통령과

공동성명 채택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원수님께서 미합중국 대통령 도널드 제이. 트럼프와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의 쉐르사섬에서 조미 두 나라 력사상 처음으로 되는 수뇌상봉과 회담을 진행하시었다. 지구상에서 가장 장구한 세월 첨예하게 대립되고 지속되어온 조미사이의 극단적인 적대관계를 끝장내고 두 나라 인민의 리익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는 수뇌분들의 확고한 결단과 의지에 의하여 금세기 최초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 수뇌회담이 진행되게 된다.

(2 면 으 로 계 속)





(1 면 에서 계속)

전세계가 하루하루 기다려온 세기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싱가포르의 곳곳에는 수천명의 내외신 기자들과 수많은 군중들이 운집되어 역사에 길이 남을 이날의 순간순간을 주시하고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현지시간으로 오전 8시 10분 숙소를 떠나시어 회담장인 싱가포르 센토사섬의 카펠라호텔에 도착하시었다.

조미수뇌분들께서 첫 상봉을 하시게 될 회담장 로비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와 미합중국 국기가 나란히 걸려있었다.

현지시간으로 오전 9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미합중국 대통령 도널드 제이. 트럼프와 상봉하시고 첫 악수를 나누시었다.

조선반도가 돌로 갈라져 대립과 반목의 역사가 흘러온 70여년만에 처음으로 조미수뇌분들이 화해를 향한 첫발을 내디디고 대화의 장에

마주서게 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트럼프대통령과 기념촬영을 하신 다음 담소를 나누시며 회담실로 향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과 트럼프대통령사이의 단독회담이 진행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오늘 여기까지 와닿는 과정이 결코 험치는 않았다고 하시면서 과거의 역사가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그릇된 편견과 관행들이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우기도 했지만 그 모든것을 과감하게 짓밟고 이렇게 이 자리에까지 왔으며 새로운 출발점에 서게 되었다는 뜻깊은 말씀을 하시었다.

조미수뇌분들께서는 수십년간 지속되어온 적대적인 조미관계에 종지부를 찍고 조선반도에 평화와 안정이 깃들도록 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실천적문제들에 대하여 솔직한 의견을 나누시었다.

조미수뇌분들의 단독회담에 이어 확대회담이 진행되었다.

확대회담에는 우리측에서 김영철, 리수용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들과 리용호 위무상이 참가하였다.

상대측에서는 미합중국 국무장관 마이크 폼페오, 미합중국 대통령 국가안전담당보좌관 존 볼튼, 백악관 비서실장 존 켈리가 참가하였다.

회담에서는 새로운 조미관계수립과 조선반도에서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구축에 관한 문제들에 대한 포괄적이며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트럼프대통령을 비롯한 미국측대표단과 이렇게 자리를 같이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시면서 적대적과거를 불분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현실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대통령의 의지와 열망을

높이 평가하시었다.

미합중국 트럼프대통령은 이번 수뇌회담이 조미관계개선으로 이어지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올해초부터 취하신 주동적이며 평화애호적인 조치에 의하여 불과 몇개월전까지만 하여도 군사적충돌의 위협이 극도에 달하였던 조선반도와 지역에 평화와 안정의 분위기가 도래하게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두 나라사이에 존재하고있는 뿌리깊은 불신과 적대감으로부터 많은 문제가 산생되었다고 하시면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고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량국이 서로에 대한 리해심을 가지고 적대시하지 않는다는것을 약속하며 이를 담보하는 법적, 제도적조치를 취해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3 면 으 로 계속)

(2 면 에서 계속)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조미쌍방이 빠른 시일안에 이번 회담에서 토의된 문제들과 공동성명을 리행해나가기 위한 실천적조치들을 적극 취해나갈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트럼프대통령이 제기한 미군유발발굴 및 송환문제를 즉석에서 수락하시고 이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세울데 대하여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조선반도에서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것이 지역과 세계평화와 안전보장에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시면서 당면해서 상대방을 자극하고 적대시하는 군사행동들을 중지하는 용단부터 내려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미합중국 대통령은 이에 리해를 표시하면서 조미사이에 선의의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조선측이 도발로 간주하는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

습을 중지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안전담보를 제공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한 관계 개선이 진척되는데 따라 대조선제재를 해제할수 있다는 의향을 표명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미국측이 조미관계 개선을 위한 진정한 신뢰구축조치를 취해나간다면 우리도 그에 상응하게 계속 다음단계의 추가적인 선의의 조치들을 취해나갈수 있다는 립장을 밝히시였다.

조미수뇌분들께서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이룩해나가는 과정에서 단계별, 동시행동원칙을 준수하는것이 중요하다는데 대하여 인식을 같이하시였다.

이날 조미수뇌분들과 쌍방회담성원들이 참가하는 오찬이 있었다.

오찬에서는 조미회담의 성과를 공고히 하고 조미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켜나가기 위하여 쌍방사이에 의사소통과 접촉레왕을 보다 활성화

해나갈데 대한 의견들이 교환되였다.

조미수뇌분들께서는 오찬이 끝난 후 함께 산책하시며 친교를 두터이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원수님께서와 미합중국 도널드 제이. 트럼프대통령은 역사적인 싱가포르수뇌회담 공동성명에서 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오늘 과거를 덮고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역사적인 공동성명에서 서명하게 된다고 하시면서 세계는 중대한 변화를 목격하게 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트럼프대통령과 역사적인 문건을 채택한 기념으로 뜻깊은 사진을 찍으시고 작별인사를 나누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와 트럼프대통령은 적대와 불신, 중요속에 살아온 두 나라가 불행한 과거를 덮어두고 서로에게 리익이 되는 훌륭한 자랑스러운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며 또

하나의 새로운 시대, 조미협력의 시대가 펼쳐지게 될것이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적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트럼프대통령이 편리한 시기에 평양을 방문하도록 초청하시였으며 트럼프대통령도 김정은국무위원장께서 미국을 방문하여주시실것을 초청하였다.

조미수뇌분들께서는 이러한 초청이 조미관계 개선을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될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이를 쾌히 수락하시였다.

전세계의 열광적인 지지와 환영속에 성과적으로 진행된 싱가포르조미수뇌회담은 조선반도와 지역에 도래하고있는 화해와 평화, 안정과 번영을 위한 역사적호름을 보다 추동하고 가장 적대적이었던 조미 두 나라사이의 관계를 시대발전의 요구에 맞게 획기적으로 전환시켜나가는데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거대한 사변으로 된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미합중국 대통령과의 역사적인 첫 상봉과 회담을 위하여 평양을 출발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조미수뇌상봉과 회담이 개최되는 싱가포르공화국을 방문하시기 위하여 10일 오전 중국전용기로 평양을 출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환송하는 의식이 평양국제비행장에서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환송 나온 조선로동당 및 정부지도간부들과 인사를 나누시고 중국전용기에 오르시였다.

조선로동당 및 정부지도간부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미 두 나라사이의 첫 수뇌상봉과 회담에서 훌륭한 성과를 거두시고 부디 안녕히 돌아오시기를 충심으로 축원하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싱가포르공화국에 도착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6월 10일 오후 싱가포르공화국에 도착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영접하기 위하여 싱가포르 공화국 외무상 비비안 발라크리쉬난, 교육상 용이 강, 외무성 상임비서 치 위 경, 외무성 동북아시아총국장 에리크 테오가 비행장에 나와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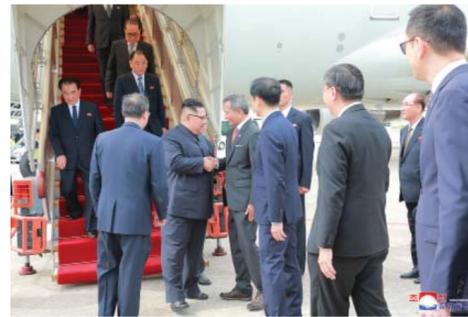
현지시간으로 오후 3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타신 중국전용기가 싱가포르 창이국제비행장에 착륙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전용기에서 내

리시여 영접 나온 싱가포르정부간부들과 따뜻한 인사를 나누시고 숙소인 세인트

레지스호텔로 향하시였다.

본사기자



김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과 도널드 제이.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사이의 싱가포르 수뇌 회담 공동 성명

김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과 도널드 제이.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은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첫 역사적인 수뇌 회담을 진행하였다.

김정은위원장과 트럼프대통령은 새로운 조미관계수립과 조선반도에서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구축에 관한 문제들에 대하여 포괄적이며 심도있고 솔직한 의견교환을 진행하였다.

트럼프대통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안전담보를 제공할것을 확인하였으며 김정은위원장은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부동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김정은위원장과 트럼프대통령은 새로운 조미관계수립이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이바지할것이라는것을 확신하면서, 호상 신뢰구축이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추동할수 있다는것을 인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두 나라 인민들의 념원에 맞게 새로운 조미관계를 수립해나가기로 하였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조선반도에서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할것이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018년 4월 27일에 채택된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면서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하여 노력할것을 약속하였다.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전쟁포로 및 행방불명자들의 유골발굴을 진행하며 이미 발굴확인된 유골들을 즉시 송환할것을 약속하였다.

김정은위원장과 트럼프대통령은 역사상 처음으로 되는 조미수뇌회담이 두 나라사이에 수십년간 지속되어온 긴장상태와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획기적인 사변이라는데 대하여 인정하면서 공동성명의 조항들을 완전하고 신속하게 리행하기로 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조미수뇌회담의 결과를 리행하기 위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안에 마이크 폼페오 미합중국 국무장관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당 고위인사사이의 후속협상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김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과 도널드 제이.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은 새로운 조미관계발전과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번영, 안전을 추동하기 위하여 협력하기로 하였다.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센토사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미합중국 대통령 도널드 제이. 트럼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싱가포르공화국 수상을 접견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6월 10일 싱가포르공화국을 방문하시고 대통령궁전에서 리 시엔 룡수상을 접견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싱가포르공화국 수상과 따뜻한 인사를 나누시고 방명록에 진필수표를 하신 다음 친선적인 담화를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훌륭하고 아름다운 싱가포르공화국을 방문하게 된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시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조선인민을 대표하여 싱가포르정부 훌륭한 축원을 전하시였다.

와 인민들에게 진심으로 되는 인사와

훌륭한 축원을 전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력사적인 조미

수뇌상봉과 회담을 위하여 모든 조건과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다.

온갖 편의를 제공하여준 싱가포르정부의

성의있는 협조에 깊은 사의를 표시하시였다.

싱가포르수상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자국을 조미수뇌회담장으로 선정해준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한다 하면서 력사적인 이번 조미수뇌회담이 조선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될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하였다.

석상에서는 두 나라사이의 훌륭한 관계를 유지하고 친교를 깊이 하면서 폭넓은 교류와 협조를 활성화하여 쌍무관계를 다방면적으로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문제들이 언급되였다.

담화는 화기에 넘치는 우호적인

본사기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싱가포르공화국의 여러 대상을 참관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6월 11일 싱가포르공화국에 체류하시면서 시내의 여러 대상을 참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싱가포르의 자랑으로 손꼽히는 대화초원과 세계적으로도 이름높은 《마리나 베이 샌즈》건물의 지붕우에 위치한 《스카이 파크》공원, 싱가포르항을 돌아보시면서 싱가포르공화국의 사회경제발전실태에 대하여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마리나 베이 샌즈》건물의 전망대에 오르시여 시내의 야경을 부감하시면서 싱가포르가 든든바대로 깨끗하고 아름다우며 건물들마다 특색이 있다고, 앞

으로 여러 분야에서 귀국의 훌륭한 지식과 경험들을 많이 배우려고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싱가포르항으로 가시는 길에 《쥬빌리》다리우에서 싱가포르의 도시형성전망계획과 듀리안극장에 대한 해설을 들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오늘 참관을 통하여 싱가포르의 경제적잠재력과 발전상을 잘 알게 되였다고, 귀국에 대한 훌륭한 인상을 가지게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싱가포르의 정부 간부들이 밤늦게 까지 동행하며 친절히 안내하고 소개하여준데 대하여 사의를 표시하시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싱가포르공화국에서 진행된 조미수뇌상봉과 회담을 성과적으로 마치시고 조국에 돌아오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싱가포르공화국에서 진행된 력사적인 조미수뇌상봉과 회담을 성과적으로 마치시고 13일 평양에 도착하시였다.

사상 류례없는 세기적인 회담에 대한 인류의 거대한 관심과 흥분이 온 지구촌을 들끓게하는 속에 싱가포르조미

수뇌회담을 성과적으로 마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12일 밤 숙소를 떠나시여 귀국길에 오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환송하기 위하여 싱가포르공화국 외무상 비비안 발라크리쉬난, 교육상 용 이 캉이 싱가포르창이국제비행장에 나왔다.

그들은 력사적인 조미수뇌회담에서 성과를 이룩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 축하의 인사를 올리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싱가포르공화국정부가 조미수뇌회담을 성공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과 성의를 기울인데 대하여 다시 한번 사의를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환송나온 싱가포르정부간부들과 따뜻한 작별인사를 나누시고 전용기에 오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라신 중국전용기는 13일 아침 7시 평양국제비행장에

착륙하였다.

머나먼 외국방문의 길에 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그리며 안녕히 다녀오실 날만을 손꼽아 기다린 온 나라인민들의 열화같은 마음이 뜨겁게 굽이치는 평양국제비행장에서는 원수님을 맞이하는 의식이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조선로동당과 정부지도간부들이 뜨겁게 맞이하였다. 영접나온 간부들은 정력적인 대외활

동으로 조선반도정치정세흐름을 주도하시며 조미관계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놓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 온 나라인민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가장 열렬하고 뜨거운 축하의 인사를 삼가 올리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과 정부지도간부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시고 사랑하는 전체 조국인민들에게 따뜻한 귀국인사를 보내시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원수님께서 새로 건설된 평양대동강수산물식당을 돌아보시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원수님께서
리설주녀사와 함께 새
로 건설된 평양대동강
수산물식당을 돌아보
시었다.

풍치수려한 대동강
반에 현대미를 자랑하
며 멋들어지게 일떠선
평양대동강수산물식당
은 우리 인민들에게
문명한 생활을 안겨주
시기 위해 그토록 마
음쓰시며 인민을 위한
일에 그 무엇도 아끼
지 않으시는 경애하는



우리 나라를 찾는 외국
손님들에게도 봉사하도
록 할데 대하여 가르치
시었다.

수산물로리의 질을
높이는데 특별한 관심
을 돌리고 이곳을 찾는
인민들이 자그마한 불
편도 느끼지 않도록 봉
사활동을 간지고 섬세
하게 해야 한다고 말씀
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는 우리 인민들에게 보
다 유족하고 행복한 생
활을 마련해 주기 위해
노력해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식당관리운영
과 봉사활동에서 나서는
구체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원수님의 다심한 은정에 의하여 마
련된 또 하나의 특색있는 금양봉사
기지이다.

최상의 봉사조건을 그쁘히 갖춘
식당에는 각종 민물고기와 바다물고
기살내못들과 다양한 형식의 식사실
들, 가공품매대들이 꾸려져있어 우
리 인민들의 구미와 기호에 맞게 펴
떨 뛰는 여러가지 고급어족들을 즉석
에서 조리하여 봉사할수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해당
부문에서 올린 식당건설자료를 보고
설계와 시공을 잘했다고 평가하였는
데 실지 와보니 정말 멋있고 특색있
다고 하시면서 식당의 이름을 《평양
대동강수산물식당》으로 명명해주시
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외부와 내
부의 모든 요소가 독특하고 정교하
며 아름답게 시공된 식당의 여러곳

을 돌아보시면서 군인건설자들이 인
민을 위한 좋은 일을 또 한가지 해놓
은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
면서 옥류관과 같이 평양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인민봉사기지가 태어났다
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실내못들
에서 유유히 헤엄치는 철갑상어, 롱
정어, 련어, 칠색송어를 비롯한 고
급어족들과 식당의 특성에 맞게 꾸

려진 가공품매대들을 보시면서 우리
인민들이 사철 펴낼 뛰는 물고기로
만든 맛있고 영양가높은 수산물로리
와 가공품을 봉사받게 되면 좋아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었다.

대중식사실과 가족식사실, 민족로
리식사실을 비롯한 여러 식사실들을
돌아보시면서 우리 근로자들이 가족
들과 함께 와서 식사도 하고 세계
여러 나라 음식들도 맛있게 하며

는 대동강반의 명당자리에 또 하나
의 인민봉사기지가 일떠섰다는것을
알면 우리 인민들이 무척 좋아할것
이라고 하시면서 식당개업과 관련된
지시를 주시었다.

조선로동당의 은정속에 솟아난
평양대동강수산물식당은 근로자들의
기쁨을 더해주며 누구나 즐겨찾는 인
민의 봉사기지로 흥성일것이다.

본사기자



사설 북남선언들을 철저히 리행하여 통일과 평화번영의 래일을 앞당겨오자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동포애와 탁월한 령도에 의하여 판문점에서 두차례의 력사적인 수뇌상봉과 회담이 마련되여 북남관계개선과 민족의 화해단합의 새시대가 펼쳐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우리 겨레는 6.15공동선언발표 18돐을 뜻깊게 맞이하였다.

돌이켜보면 2000년 6월 나라가 갈라져 55년만에 처음으로 평양상봉이 마련되고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을 핵으로 하는 6.15공동선언이 채택발표된것은 삼천리강토를 크나큰 감격과 환희로 뚫게 한 민족사적사변이었다.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간다는것을 온 세상에 엄숙히 선포한 6.15공동선언이 마련됨으로써 우리 겨레는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민족의 주체적합, 대단결의 위력으로 하루빨리 이룩할수 있는 불멸의 지침을 받아안게 되었다.

6.15가 있음으로 하여 북과 남의 우리 겨레는 반세기이상 지속되어온 반복과 불신을 가지고 자주통일과 민족공동의 번영을 위하여 함께 손잡고나아가는 력사

의 새시대, 자주통일시대에 들어서게 되었다.

북과 남사이에 다방면적인 대화와 접촉이 이루어지고 민족공동의 통일행사들이 성대히 진행되었으며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가 활발히 벌어졌다. 국토의 허리를 가로지른 분렬의 장벽을 뚫고 철도와 도로가 이어지고 하늘길, 바다길이 열리는 장쾌한 사변들도 일어났다. 해내의 통일운동단체들사이의 련대련합기운이 활발해지는 속에 전면전적 통일운동련대기구인 6.15민족공동위원회도 결성되어 조국통일의 주체는 비상히 강화되었다. 6.15와 더불어 이 땅에 펼쳐진 경이적인 사변들은 우리 민족끼리 손잡고 힘을 합칠 때 못해낼 일이 없으며 얼마든지 민족의 공동번영도 이룩하고 나라의 통일도 실현할수 있다는것을 보여 주었다.

북남관계와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 일대 전환적국면을 펼친 6.15공동선언의 채택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숭고한 애국애족의 뜻과 확고부동한 자주통일의 지, 탁월한 령도가 낳은 고귀한 결실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력사적인 평양상봉의 나날 남측대통령일행

을 따듯이 맞이주시고 그들이 체류하는 전기관 컨리해안의 예지와 숭고한 동포애, 해박한 식견과 접촉이 이루어지고 민족공동의 통일행사들이 성대히 진행되었으며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가 활발히 벌어졌다. 국토의 허리를 가로지른 분렬의 장벽을 뚫고 철도와 도로가 이어지고 하늘길, 바다길이 열리는 장쾌한 사변들도 일어났다. 해내의 통일운동단체들사이의 련대련합기운이 활발해지는 속에 전면전적 통일운동련대기구인 6.15민족공동위원회도 결성되어 조국통일의 주체는 비상히 강화되었다. 6.15와 더불어 이 땅에 펼쳐진 경이적인 사변들은 우리 민족끼리 손잡고 힘을 합칠 때 못해낼 일이 없으며 얼마든지 민족의 공동번영도 이룩하고 나라의 통일도 실현할수 있다는것을 보여 주었다.

북남관계와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 일대 전환적국면을 펼친 6.15공동선언의 채택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숭고한 애국애족의 뜻과 확고부동한 자주통일의 지, 탁월한 령도가 낳은 고귀한 결실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력사적인 평양상봉의 나날 남측대통령일행

을 따듯이 맞이주시고 그들이 체류하는 전기관 컨리해안의 예지와 숭고한 동포애, 해박한 식견과 접촉이 이루어지고 민족공동의 통일행사들이 성대히 진행되었으며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가 활발히 벌어졌다. 국토의 허리를 가로지른 분렬의 장벽을 뚫고 철도와 도로가 이어지고 하늘길, 바다길이 열리는 장쾌한 사변들도 일어났다. 해내의 통일운동단체들사이의 련대련합기운이 활발해지는 속에 전면전적 통일운동련대기구인 6.15민족공동위원회도 결성되어 조국통일의 주체는 비상히 강화되었다. 6.15와 더불어 이 땅에 펼쳐진 경이적인 사변들은 우리 민족끼리 손잡고 힘을 합칠 때 못해낼 일이 없으며 얼마든지 민족의 공동번영도 이룩하고 나라의 통일도 실현할수 있다는것을 보여 주었다.

북남관계와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 일대 전환적국면을 펼친 6.15공동선언의 채택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숭고한 애국애족의 뜻과 확고부동한 자주통일의 지, 탁월한 령도가 낳은 고귀한 결실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력사적인 평양상봉의 나날 남측대통령일행

을 따듯이 맞이주시고 그들이 체류하는 전기관 컨리해안의 예지와 숭고한 동포애, 해박한 식견과 접촉이 이루어지고 민족공동의 통일행사들이 성대히 진행되었으며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가 활발히 벌어졌다. 국토의 허리를 가로지른 분렬의 장벽을 뚫고 철도와 도로가 이어지고 하늘길, 바다길이 열리는 장쾌한 사변들도 일어났다. 해내의 통일운동단체들사이의 련대련합기운이 활발해지는 속에 전면전적 통일운동련대기구인 6.15민족공동위원회도 결성되어 조국통일의 주체는 비상히 강화되었다. 6.15와 더불어 이 땅에 펼쳐진 경이적인 사변들은 우리 민족끼리 손잡고 힘을 합칠 때 못해낼 일이 없으며 얼마든지 민족의 공동번영도 이룩하고 나라의 통일도 실현할수 있다는것을 보여 주었다.

북남관계와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 일대 전환적국면을 펼친 6.15공동선언의 채택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숭고한 애국애족의 뜻과 확고부동한 자주통일의 지, 탁월한 령도가 낳은 고귀한 결실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력사적인 평양상봉의 나날 남측대통령일행

을 따듯이 맞이주시고 그들이 체류하는 전기관 컨리해안의 예지와 숭고한 동포애, 해박한 식견과 접촉이 이루어지고 민족공동의 통일행사들이 성대히 진행되었으며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가 활발히 벌어졌다. 국토의 허리를 가로지른 분렬의 장벽을 뚫고 철도와 도로가 이어지고 하늘길, 바다길이 열리는 장쾌한 사변들도 일어났다. 해내의 통일운동단체들사이의 련대련합기운이 활발해지는 속에 전면전적 통일운동련대기구인 6.15민족공동위원회도 결성되어 조국통일의 주체는 비상히 강화되었다. 6.15와 더불어 이 땅에 펼쳐진 경이적인 사변들은 우리 민족끼리 손잡고 힘을 합칠 때 못해낼 일이 없으며 얼마든지 민족의 공동번영도 이룩하고 나라의 통일도 실현할수 있다는것을 보여 주었다.

북남관계와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 일대 전환적국면을 펼친 6.15공동선언의 채택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숭고한 애국애족의 뜻과 확고부동한 자주통일의 지, 탁월한 령도가 낳은 고귀한 결실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력사적인 평양상봉의 나날 남측대통령일행

을 따듯이 맞이주시고 그들이 체류하는 전기관 컨리해안의 예지와 숭고한 동포애, 해박한 식견과 접촉이 이루어지고 민족공동의 통일행사들이 성대히 진행되었으며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가 활발히 벌어졌다. 국토의 허리를 가로지른 분렬의 장벽을 뚫고 철도와 도로가 이어지고 하늘길, 바다길이 열리는 장쾌한 사변들도 일어났다. 해내의 통일운동단체들사이의 련대련합기운이 활발해지는 속에 전면전적 통일운동련대기구인 6.15민족공동위원회도 결성되어 조국통일의 주체는 비상히 강화되었다. 6.15와 더불어 이 땅에 펼쳐진 경이적인 사변들은 우리 민족끼리 손잡고 힘을 합칠 때 못해낼 일이 없으며 얼마든지 민족의 공동번영도 이룩하고 나라의 통일도 실현할수 있다는것을 보여 주었다.

북남관계와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 일대 전환적국면을 펼친 6.15공동선언의 채택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숭고한 애국애족의 뜻과 확고부동한 자주통일의 지, 탁월한 령도가 낳은 고귀한 결실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력사적인 평양상봉의 나날 남측대통령일행

북남장령급군사회담 진행

【판문점 6월 14일발 조선중앙통신】 력사적인 판문점선언을 철저히 리행하기 위한 북남장령급군사회담이 14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는 안익산 조선인민군 특근중앙을 단장으로 하는 우리측 대표단과 김도균 소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남측 대표단이 참가하였다.

회담에서 쌍방은 조선반도에서 군사적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실질적으

로 해소하는데서 나서는 제반문제들을 진지하게 협의하였으며 공동보도문을 채택하였다.

공동보도문에는 쌍방이 군사적충돌의 원인으로 되는 일체 적대행위를 중지하는 문제, 서해일점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문제, 북남사이의 협력과 교류, 래왕과 접촉에 대한 군사적보장대책을 세우는 문제, 판문점공동경비구역을 시범적으로 비무장화

하는 문제 등에 대한 충분한 의견을 교환하였다고 지적되어있다.

또한 쌍방이 서해해상충돌방지를 위한 2004년 6월 4일 북남군부회담합의를 철저히 리행하며 동, 서해지구군통신을 완전복구하는 문제에 대하여 호상 견해 일치를 보았으며 이번 회담에서 상정된 문제들을 앞으로 계속 협의해결해나가기로 하였다는 내용이 반영되어있다.

에 대한 무한대한 사랑과 믿음은 천만군민의 일련단심을 낳는 근본원천으로 되고 있다.

언제나 인민들속에 계시며 사랑과 정으로 일심단결의 만년성새를 억척같이 다져가시는 그이를 모시어 이 땅에는 만사함을 울리는 인민사랑의 화폭들이 끊없이 펼쳐지고있다.

천만군민을 대해같은 품에 안아 극진히 보살펴주시고 아이들이 웃음소리, 노래소리를 최후승리를 향하여 전진하는 사회주의조국의 동음으로 안고 사시며 만복을 꽃피워주실 의지를 더욱 가다듬으시는 경에하는 원수님이시다. 그이와 맺은 정을 피출처럼 간직하고 그이따라 나아가야 할 백전백승한다는 진리를 뼈에 새겨안은 인민이기에 누구나 그이의 구상을 실현하는 성스러운 투쟁에 백옥같은 충정을 바쳐가고있는것이다.

그 누구도 가질수 없고 흉내낼수도 없는 일심단결, 여기에 공화국의 사회주의가 영원히 승리만을 펼쳐나갈수 있는 근본담보가 있다.

세계는 경에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나아가는 공화국인민들이 어떻게 이 땅우에 만복이 넘쳐나는 천하제일강국을 일떠세우는가를 똑똑히 보게 될것이다.

한순희

로 해소하는데서 나서는 제반문제들을 진지하게 협의하였으며 공동보도문을 채택하였다.

공동보도문에는 쌍방이 군사적충돌의 원인으로 되는 일체 적대행위를 중지하는 문제, 서해일점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문제, 북남사이의 협력과 교류, 래왕과 접촉에 대한 군사적보장대책을 세우는 문제, 판문점공동경비구역을 시범적으로 비무장화

하는 문제 등에 대한 충분한 의견을 교환하였다고 지적되어있다.

또한 쌍방이 서해해상충돌방지를 위한 2004년 6월 4일 북남군부회담합의를 철저히 리행하며 동, 서해지구군통신을 완전복구하는 문제에 대하여 호상 견해 일치를 보았으며 이번 회담에서 상정된 문제들을 앞으로 계속 협의해결해나가기로 하였다는 내용이 반영되어있다.

에 대한 무한대한 사랑과 믿음은 천만군민의 일련단심을 낳는 근본원천으로 되고 있다.

언제나 인민들속에 계시며 사랑과 정으로 일심단결의 만년성새를 억척같이 다져가시는 그이를 모시어 이 땅에는 만사함을 울리는 인민사랑의 화폭들이 끊없이 펼쳐지고있다.

천만군민을 대해같은 품에 안아 극진히 보살펴주시고 아이들이 웃음소리, 노래소리를 최후승리를 향하여 전진하는 사회주의조국의 동음으로 안고 사시며 만복을 꽃피워주실 의지를 더욱 가다듬으시는 경에하는 원수님이시다. 그이와 맺은 정을 피출처럼 간직하고 그이따라 나아가야 할 백전백승한다는 진리를 뼈에 새겨안은 인민이기에 누구나 그이의 구상을 실현하는 성스러운 투쟁에 백옥같은 충정을 바쳐가고있는것이다.

그 누구도 가질수 없고 흉내낼수도 없는 일심단결, 여기에 공화국의 사회주의가 영원히 승리만을 펼쳐나갈수 있는 근본담보가 있다.

세계는 경에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나아가는 공화국인민들이 어떻게 이 땅우에 만복이 넘쳐나는 천하제일강국을 일떠세우는가를 똑똑히 보게 될것이다.

한순희

로 해소하는데서 나서는 제반문제들을 진지하게 협의하였으며 공동보도문을 채택하였다.

공동보도문에는 쌍방이 군사적충돌의 원인으로 되는 일체 적대행위를 중지하는 문제, 서해일점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문제, 북남사이의 협력과 교류, 래왕과 접촉에 대한 군사적보장대책을 세우는 문제, 판문점공동경비구역을 시범적으로 비무장화

하는 문제 등에 대한 충분한 의견을 교환하였다고 지적되어있다.

또한 쌍방이 서해해상충돌방지를 위한 2004년 6월 4일 북남군부회담합의를 철저히 리행하며 동, 서해지구군통신을 완전복구하는 문제에 대하여 호상 견해 일치를 보았으며 이번 회담에서 상정된 문제들을 앞으로 계속 협의해결해나가기로 하였다는 내용이 반영되어있다.

에 대한 무한대한 사랑과 믿음은 천만군민의 일련단심을 낳는 근본원천으로 되고 있다.

언제나 인민들속에 계시며 사랑과 정으로 일심단결의 만년성새를 억척같이 다져가시는 그이를 모시어 이 땅에는 만사함을 울리는 인민사랑의 화폭들이 끊없이 펼쳐지고있다.

천만군민을 대해같은 품에 안아 극진히 보살펴주시고 아이들이 웃음소리, 노래소리를 최후승리를 향하여 전진하는 사회주의조국의 동음으로 안고 사시며 만복을 꽃피워주실 의지를 더욱 가다듬으시는 경에하는 원수님이시다. 그이와 맺은 정을 피출처럼 간직하고 그이따라 나아가야 할 백전백승한다는 진리를 뼈에 새겨안은 인민이기에 누구나 그이의 구상을 실현하는 성스러운 투쟁에 백옥같은 충정을 바쳐가고있는것이다.

그 누구도 가질수 없고 흉내낼수도 없는 일심단결, 여기에 공화국의 사회주의가 영원히 승리만을 펼쳐나갈수 있는 근본담보가 있다.

세계는 경에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나아가는 공화국인민들이 어떻게 이 땅우에 만복이 넘쳐나는 천하제일강국을 일떠세우는가를 똑똑히 보게 될것이다.

한순희

로 해소하는데서 나서는 제반문제들을 진지하게 협의하였으며 공동보도문을 채택하였다.

공동보도문에는 쌍방이 군사적충돌의 원인으로 되는 일체 적대행위를 중지하는 문제, 서해일점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문제, 북남사이의 협력과 교류, 래왕과 접촉에 대한 군사적보장대책을 세우는 문제, 판문점공동경비구역을 시범적으로 비무장화

하는 문제 등에 대한 충분한 의견을 교환하였다고 지적되어있다.

또한 쌍방이 서해해상충돌방지를 위한 2004년 6월 4일 북남군부회담합의를 철저히 리행하며 동, 서해지구군통신을 완전복구하는 문제에 대하여 호상 견해 일치를 보았으며 이번 회담에서 상정된 문제들을 앞으로 계속 협의해결해나가기로 하였다는 내용이 반영되어있다.

에 대한 무한대한 사랑과 믿음은 천만군민의 일련단심을 낳는 근본원천으로 되고 있다.

언제나 인민들속에 계시며 사랑과 정으로 일심단결의 만년성새를 억척같이 다져가시는 그이를 모시어 이 땅에는 만사함을 울리는 인민사랑의 화폭들이 끊없이 펼쳐지고있다.

천만군민을 대해같은 품에 안아 극진히 보살펴주시고 아이들이 웃음소리, 노래소리를 최후승리를 향하여 전진하는 사회주의조국의 동음으로 안고 사시며 만복을 꽃피워주실 의지를 더욱 가다듬으시는 경에하는 원수님이시다. 그이와 맺은 정을 피출처럼 간직하고 그이따라 나아가야 할 백전백승한다는 진리를 뼈에 새겨안은 인민이기에 누구나 그이의 구상을 실현하는 성스러운 투쟁에 백옥같은 충정을 바쳐가고있는것이다.

그 누구도 가질수 없고 흉내낼수도 없는 일심단결, 여기에 공화국의 사회주의가 영원히 승리만을 펼쳐나갈수 있는 근본담보가 있다.

세계는 경에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나아가는 공화국인민들이 어떻게 이 땅우에 만복이 넘쳐나는 천하제일강국을 일떠세우는가를 똑똑히 보게 될것이다.

한순희

로 해소하는데서 나서는 제반문제들을 진지하게 협의하였으며 공동보도문을 채택하였다.

공동보도문에는 쌍방이 군사적충돌의 원인으로 되는 일체 적대행위를 중지하는 문제, 서해일점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문제, 북남사이의 협력과 교류, 래왕과 접촉에 대한 군사적보장대책을 세우는 문제, 판문점공동경비구역을 시범적으로 비무장화

하는 문제 등에 대한 충분한 의견을 교환하였다고 지적되어있다.

또한 쌍방이 서해해상충돌방지를 위한 2004년 6월 4일 북남군부회담합의를 철저히 리행하며 동, 서해지구군통신을 완전복구하는 문제에 대하여 호상 견해 일치를 보았으며 이번 회담에서 상정된 문제들을 앞으로 계속 협의해결해나가기로 하였다는 내용이 반영되어있다.

에 대한 무한대한 사랑과 믿음은 천만군민의 일련단심을 낳는 근본원천으로 되고 있다.

언제나 인민들속에 계시며 사랑과 정으로 일심단결의 만년성새를 억척같이 다져가시는 그이를 모시어 이 땅에는 만사함을 울리는 인민사랑의 화폭들이 끊없이 펼쳐지고있다.

천만군민을 대해같은 품에 안아 극진히 보살펴주시고 아이들이 웃음소리, 노래소리를 최후승리를 향하여 전진하는 사회주의조국의 동음으로 안고 사시며 만복을 꽃피워주실 의지를 더욱 가다듬으시는 경에하는 원수님이시다. 그이와 맺은 정을 피출처럼 간직하고 그이따라 나아가야 할 백전백승한다는 진리를 뼈에 새겨안은 인민이기에 누구나 그이의 구상을 실현하는 성스러운 투쟁에 백옥같은 충정을 바쳐가고있는것이다.

그 누구도 가질수 없고 흉내낼수도 없는 일심단결, 여기에 공화국의 사회주의가 영원히 승리만을 펼쳐나갈수 있는 근본담보가 있다.

세계는 경에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나아가는 공화국인민들이 어떻게 이 땅우에 만복이 넘쳐나는 천하제일강국을 일떠세우는가를 똑똑히 보게 될것이다.

한순희

남조선에서의 민주, 통일운동을 계속 벌려나갈 의지 표명

남조선인 인터넷신문 《통일뉴스》에 의하면 대 전세총총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의 주최로 지난 10일 6월인민항쟁 31돐 기념식이 대전시 증구에서 진행되었다.

지난해 항쟁 30돐에 즈음하여 세워진 표식비 앞에서 진행된 기념식에는 당시 항쟁자들을 비롯한 각계층 시민들이 참가하였다.

발언자들은 이 자리가 1987년 6월 《독재타도》, 《호헌철폐》를 목청껏 외치던 군부독재에 맞서 싸웠던 항쟁장소라고 밝혔다.

5.18광주봉기와 6월항쟁의 력사가 초불항쟁으로 이어졌고 민주화를 위한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있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사회에 존재하는 각종 차별과 폭력을 없애고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분렬로 인한 질곡의 력사에 중지부를 찍고 남북화해와 교류가 활발해지기를 바란다 고 하면서 그들은 6월항쟁의 정신으로 반드시 민주주의와 통일을 이룩하고 평화를 안아올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분렬로 인한 질곡의 력사에 중지부를 찍고 남북화해와 교류가 활발해지기를 바란다 고 하면서 그들은 6월항쟁의 정신으로 반드시 민주주의와 통일을 이룩하고 평화를 안아올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6월은 무엇을 말하는가

바라보니 6월의 하늘은 예전과 다름없이 푸르게 열리고 산천은 록음으로 무성하구나 허나 10여년세월 흘러온 6월과는 얼마나 다른가 오늘의 이 6월은 새 력사의 출발점에서 우리 겨레 흥분으로 높뛰는 가슴에 받아안은 4.27선언 그날의 열광우에 지퍼진 감격의 불인듯 온 겨레가 환희속에 맞는 6.15 6월의 이 강산은 통일열기로 뜨겁다

돌이켜보면 흘러온 10여년세월은 우리에게 어떤 세월이었던가 동족대결의 먹장구름 가실새 없어

만나지도 오가지도 못했던 겨레 찻기는 가슴에 아픔이 덧쌓이던 비극의 세월

북과 남이 함께 심어가꾼 6.15시대의 알찬 열매들 한중도 못되는 반통일무리가 어떻게 무참히 짓밟았더냐 이 하늘 이 땅을 어지럽히며 불구름은 또 얼마나 밀려들었더냐

그 10여년세월에 몰아친 대결의 살풍 겨레의 가슴 파고들던 고통과 울분 단숨에 흘날려버리시며 우리 원수님 판문점에 펼쳐주신 평화번영의 새시대 오, 6.15 겨레는 감격으로 불려 목이 메이거니

김송림

더이상 우리 6.15를 잃고 비극의 세월을 다시 살수 없노라 다시 찾은 6.15의 기쁨, 감격앞에 그 10여년의 눈물 놓을수 없노라

오, 대결과 불신의 장막 걷어내시고 새 력사의 서막 장쾌히 열어제끼신 민족의 은인 우리 원수님 그이 안아오신 4.27선언이 있어 이 땅의 6월은 이토록 환희롭고 겨레의 앞날은 눈부시게 창창하다

6월의 이 감격 이 격동 4.27선언을 따라 평화번영, 통일의 환희로 이어나가자 겨레의 가슴 흔들며 6월은 말한다 6월은 웨친다

겨레는 보았다

계절의 봄까지 얼쿠고 얼쿠며 소름돋는 전운만이 감돌던 여기 판문점에 찾아온 환희의 4월 겨레의 가슴에 그 4월은 무엇이던가

세월의 한이 쌓인 판문점분리선을 한결음에 넘으신 우리 원수님 아, 강도를 진감시킨 4월의 환호성 6.15시대를 맞아 삼천리를 들썩케 한 그날의 격동 다시 터져오른것인가

누구나 솟구치는 눈물 걸잡지 못한 4월 줄줄이 흘러내린 그 진한 눈물은

새로운 력사의 출발 장엄히 선언하시던 우리 원수님 우러려 겨레가 터친 고마움의 눈물 감사의 격정

겨레여, 그날 우리 보지 않았더냐 원수님 신호탄을 쏘아올리신 평화번영의 새시대 새 력사의 출발점에서 우리 민족끼리시대의 힘찬 전진을 판문점선언을 따라 밝아올 평화번영의 려명을

북이라 남이라 온 삼천리에 김정일영풍으로 들끓던 6.15 정령 그 6.15가 다시 왔는가

리송일

삼천리가 들썩하게 온 행성이 뒤울리게 세차게 터져오른 김정은열풍!

걸음 앞서 겨레의 마음은 벌써 평양과 금강산, 백두산으로 나래쳐오르고 서울과 광주, 제주에서 터져오를 민족의 화해, 단합의 합성을 듣노니

우리 겨레 목숨처럼 안고 산 6.15 그 나날의 소중하고 귀중한 모든것을 다 그려주고 다 펼쳐주는 4월 27일 그날은 진정 6.15였다

겨레는 그 4월에 통일6.15를 보았다

우리에겐 4.27선언이 있다

어들을 가서주는 빛이라 할가 얼음장을 녹여주는 열이라 할가 4.27선언! 새 력사의 출발을 장엄하게 개시한 오, 우리 겨레에겐 4.27선언이 있다

감격에 들먹여 높뛰는 가슴들이 통일이 금방 눈앞에 온것만 같다고 것처럼 환호하며 열광한 6.15공동선언 그 가슴들에 활력을 더해주는 세찬 숨결인가

겨레가 받아안은 4.27선언 자자구구 새겨보라 6.15의 낮이 글밭마다 살아숨쉬고 6.15의 뜻이 맥맥히 어려있는 이는 6.15공동선언의 계승

우리 시대의 자주통일강령! 오늘도 눈가에 삼삼해라 뜻깊은 선언문에 서명하시여 평화번영의 새시대 열어놓으신 원수님 환하게 웃으시던 그 모습에서 우리 민족끼리 시대를 열어놓으신 장군님의 존안을 뵈은 우리 겨레

분렬세월 밀어내고 이 강토우에 겨레의 앞길 열어준 6.15라면

김태동

그 길에 눈부신 빛 뿌려준 4.27선언 분렬의 먹장구름 가시어내고 창창한 하늘 열어준 6.15라면 그 하늘 불구름에 덮이지 않게 하여준 4.27선언

민족자주의 선언 민족대단결의 선언

겨레여, 4.27선언이 밝혀준 길을 가자 그 길에 이 땅의 평화번영 통일강국의 래일이 있거니

오, 북과 남 8천만 겨레에겐 통일의 그날까지 줄줄처럼 놓지 말아야 할 4.27판문점선언이 있다

민족을 이끌어 통일강국 세우실 절세의 위인 통일의 구성 원수님이 계신다

위 인 이 력 사 를 창 조 한 다

우리 민족이 평화변영의 밝은 미래에 새 출발을 한 기쁨과 환희속에 역사적인 6.15공동선언 발표기념일을 맞이하게 되니 마음이 격정으로 더욱 설레인다.

북남관계개선의 사변이 너무도 놀랍고 파격적인 환희여서 이게 꿈이 아닌가 하고 생각되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꿈이 아니다. 조선반도에 기적처럼 찾아온 현상이다. 18년전 조선반도에서 력사의 물줄기를 바꾼 감동의 6.15 통일시대도 지금처럼 꿈같이 찾아왔다.

격동과 환희로 충만된 기적과 사변의 중심에는 어제도 오늘도 절세의 위인들께서 서계신다.

분렬과 대결의 장벽이 너무도 높아 정녕 이룰수 없는 꿈으로만 여겼던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선대 수령의 유지를 받들어

6월의 평양상봉과 두차례의 판문점상봉은 다 절세인물들께서 선대수령의 유지를 받들어 이루어내신 력사적인 만남이었는데 중요한 공통점이 있다.

18년전 온 세계의 이목을 끈 6월의 평양상봉은 김정일 국방위원장님께서 김일성주석님의 통일유지를 받들어 성사시키신 민족사적사변이었다.

한평생 민족의 통일을 위해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시고 위대한 심장의 마지막박동까지 조국통일을 위해 바치신 위대한 주석님을 절절히 그리시며 김정일국방위원장님께서 민족분렬의 한이 서려있는 판문점에 주석님의 통일권필을 정히 모시도록 하시었다. 그리고 긴장이 한껏 서려있는 위험천만한 판문점을 뚫고 찾오시어 주석님의 통일유지를 받들어 판문점을 통일의 상징으로 만드실 결연한 의지를 피력하시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언을 철저히 관철하자》라는 불후의 명저에도 구절 구절 어려이기는 국방위원장님의 확고한 그 의지가 력사적인 첫 북남수뇌상봉과 6.15공동선언 발표라는 크나큰 실천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하기에 평양상봉의 잊을수 없는 날에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는 남측대통령과 그 일행에게 김일성주석님께서 생존해계셨더라면 제가 아니라 우리 주석님께서 김대통령을 맞아주셨을 것이라고, 사실 북남최고위급회담은 주석님께서 생존해계실 때 실현하시려던 것이었다고 가슴뜨겁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던가.

현실로 만들어주시고 조선민족이 주인이 된 자주통일의 새 력사, 평화변영의 새시대를 활짝 열어 준 고마운 그 손길.

격동의 4.27, 5.26 판문점수뇌상봉과 회담역시 국방위원장님의 통일에국의 유지를 받들어 김정일최고령도자님을 우리러브드라님 김정일국방위원장님의 환한심 모습을 우려했이 안겨준다.

력사는 위인이 창조한다. 나는 이 만고불변의 진리를 6.15의 소중한 감동을 안고 판문점의 련이 온 충격을 다시금 되새기며 피력해보고자 한다.

백두의 넘과 기상으로

력사의 땅 판문점에서 련이어 이루어진 제3차, 4차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역시 국방위원장님의 통일에국의 유지를 받들어 김정일최고령도자님께서 크나큰 용기와 대범한 결단으로 성사시키신 행적을 뒤흔든 파격적인 상봉이고 회담들이다. 최고령도자님의 마음속에 은 언제나 주석님과 국방위원장님의 간곡한 통일유

의를 받들어 성사시키신 민족사적사변이었다.

백두산에 오르면 삼천리가 보이고 통일이 보인다. 백두산에서 삼천리를 한복에 뜨겁게 안아보실 때 최고령도자님의 마음속에 고래친 것이 무엇이였을까.

그로부터 불과 20여일후에 있는 2018년 신년사에서 북남관계개전환을 선언하신 최고령도자님께서 이를 위한 여러가지 실천적인 조치들을 련속 취해주시며 나는 백두산에 서계시던 그분의 모습이 떠올라 더더욱 격정과 흥분을 금할수 없었다.

최고령도자님께서 폭죽선정으로 로부터 형상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시연회도 몸소 지도하여주시어 남북인민들에게 들려주신 삼지연관현악단의 노래들에는 《백두와 한나는 내 조국》이라는 노래도 있다. 가사에도 있는 것처럼 백두에서 조국통일 해맞이하러는것은 우리 온 겨레가 품고있는 간절한 소원이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님께서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문재인대통령을 만나주실 때 그 력사적인 상봉장소의 벽면에는 백두산을 형상한 대형미술작품이 걸려있었다. 분렬과 대결, 대결의 오랜 력사에 종지부를 찍고 민족적화해와 평화변영의 새 출발을 알린 판문점의 봄, 온 세계가 경탄하는 민족의 새 봄은 백두의 넘과 기상을 한몸에 지니신 절세위인의 크나큰 담력과 역센 자주의지, 넓은 도량과 뜨거운 민족애가 안아온 것이라는 것을 그 미술작품이 다 말해주고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백두산에 오르면 삼천리가 보이고 통일이 보인다. 백두산에서 삼천리를 한복에 뜨겁게 안아보실 때 최고령도자님의 마음속에 은 언제나 주석님과 국방위원장님의 간곡한 통일유의를 받들어 성사시키신 민족사적사변이었다.》

《백두산에 오르면 삼천리가 보이고 통일이 보인다. 백두산에서 삼천리를 한복에 뜨겁게 안아보실 때 최고령도자님의 마음속에 은 언제나 주석님과 국방위원장님의 간곡한 통일유의를 받들어 성사시키신 민족사적사변이었다.》

《백두산에 오르면 삼천리가 보이고 통일이 보인다. 백두산에서 삼천리를 한복에 뜨겁게 안아보실 때 최고령도자님의 마음속에 은 언제나 주석님과 국방위원장님의 간곡한 통일유의를 받들어 성사시키신 민족사적사변이었다.》

《백두산에 오르면 삼천리가 보이고 통일이 보인다. 백두산에서 삼천리를 한복에 뜨겁게 안아보실 때 최고령도자님의 마음속에 은 언제나 주석님과 국방위원장님의 간곡한 통일유의를 받들어 성사시키신 민족사적사변이었다.》

《백두산에 오르면 삼천리가 보이고 통일이 보인다. 백두산에서 삼천리를 한복에 뜨겁게 안아보실 때 최고령도자님의 마음속에 은 언제나 주석님과 국방위원장님의 간곡한 통일유의를 받들어 성사시키신 민족사적사변이었다.》

《백두산에 오르면 삼천리가 보이고 통일이 보인다. 백두산에서 삼천리를 한복에 뜨겁게 안아보실 때 최고령도자님의 마음속에 은 언제나 주석님과 국방위원장님의 간곡한 통일유의를 받들어 성사시키신 민족사적사변이었다.》

5 5 시간과 1 2 시간

《력사가 만들어졌다.》 《김정일국방위원장이 김대중 대통령과 엮어낸 《세기적상봉》은 절곡과 비탄의 이 땅에

《백두산에 오르면 삼천리가 보이고 통일이 보인다. 백두산에서 삼천리를 한복에 뜨겁게 안아보실 때 최고령도자님의 마음속에 은 언제나 주석님과 국방위원장님의 간곡한 통일유의를 받들어 성사시키신 민족사적사변이었다.》

《백두산에 오르면 삼천리가 보이고 통일이 보인다. 백두산에서 삼천리를 한복에 뜨겁게 안아보실 때 최고령도자님의 마음속에 은 언제나 주석님과 국방위원장님의 간곡한 통일유의를 받들어 성사시키신 민족사적사변이었다.》

《백두산에 오르면 삼천리가 보이고 통일이 보인다. 백두산에서 삼천리를 한복에 뜨겁게 안아보실 때 최고령도자님의 마음속에 은 언제나 주석님과 국방위원장님의 간곡한 통일유의를 받들어 성사시키신 민족사적사변이었다.》

《백두산에 오르면 삼천리가 보이고 통일이 보인다. 백두산에서 삼천리를 한복에 뜨겁게 안아보실 때 최고령도자님의 마음속에 은 언제나 주석님과 국방위원장님의 간곡한 통일유의를 받들어 성사시키신 민족사적사변이었다.》

《백두산에 오르면 삼천리가 보이고 통일이 보인다. 백두산에서 삼천리를 한복에 뜨겁게 안아보실 때 최고령도자님의 마음속에 은 언제나 주석님과 국방위원장님의 간곡한 통일유의를 받들어 성사시키신 민족사적사변이었다.》

《백두산에 오르면 삼천리가 보이고 통일이 보인다. 백두산에서 삼천리를 한복에 뜨겁게 안아보실 때 최고령도자님의 마음속에 은 언제나 주석님과 국방위원장님의 간곡한 통일유의를 받들어 성사시키신 민족사적사변이었다.》

《백두산에 오르면 삼천리가 보이고 통일이 보인다. 백두산에서 삼천리를 한복에 뜨겁게 안아보실 때 최고령도자님의 마음속에 은 언제나 주석님과 국방위원장님의 간곡한 통일유의를 받들어 성사시키신 민족사적사변이었다.》

《백두산에 오르면 삼천리가 보이고 통일이 보인다. 백두산에서 삼천리를 한복에 뜨겁게 안아보실 때 최고령도자님의 마음속에 은 언제나 주석님과 국방위원장님의 간곡한 통일유의를 받들어 성사시키신 민족사적사변이었다.》

《백두산에 오르면 삼천리가 보이고 통일이 보인다. 백두산에서 삼천리를 한복에 뜨겁게 안아보실 때 최고령도자님의 마음속에 은 언제나 주석님과 국방위원장님의 간곡한 통일유의를 받들어 성사시키신 민족사적사변이었다.》

《백두산에 오르면 삼천리가 보이고 통일이 보인다. 백두산에서 삼천리를 한복에 뜨겁게 안아보실 때 최고령도자님의 마음속에 은 언제나 주석님과 국방위원장님의 간곡한 통일유의를 받들어 성사시키신 민족사적사변이었다.》

《백두산에 오르면 삼천리가 보이고 통일이 보인다. 백두산에서 삼천리를 한복에 뜨겁게 안아보실 때 최고령도자님의 마음속에 은 언제나 주석님과 국방위원장님의 간곡한 통일유의를 받들어 성사시키신 민족사적사변이었다.》

수기

《백두산에 오르면 삼천리가 보이고 통일이 보인다. 백두산에서 삼천리를 한복에 뜨겁게 안아보실 때 최고령도자님의 마음속에 은 언제나 주석님과 국방위원장님의 간곡한 통일유의를 받들어 성사시키신 민족사적사변이었다.》

《백두산에 오르면 삼천리가 보이고 통일이 보인다. 백두산에서 삼천리를 한복에 뜨겁게 안아보실 때 최고령도자님의 마음속에 은 언제나 주석님과 국방위원장님의 간곡한 통일유의를 받들어 성사시키신 민족사적사변이었다.》

《백두산에 오르면 삼천리가 보이고 통일이 보인다. 백두산에서 삼천리를 한복에 뜨겁게 안아보실 때 최고령도자님의 마음속에 은 언제나 주석님과 국방위원장님의 간곡한 통일유의를 받들어 성사시키신 민족사적사변이었다.》

《백두산에 오르면 삼천리가 보이고 통일이 보인다. 백두산에서 삼천리를 한복에 뜨겁게 안아보실 때 최고령도자님의 마음속에 은 언제나 주석님과 국방위원장님의 간곡한 통일유의를 받들어 성사시키신 민족사적사변이었다.》

《백두산에 오르면 삼천리가 보이고 통일이 보인다. 백두산에서 삼천리를 한복에 뜨겁게 안아보실 때 최고령도자님의 마음속에 은 언제나 주석님과 국방위원장님의 간곡한 통일유의를 받들어 성사시키신 민족사적사변이었다.》

《백두산에 오르면 삼천리가 보이고 통일이 보인다. 백두산에서 삼천리를 한복에 뜨겁게 안아보실 때 최고령도자님의 마음속에 은 언제나 주석님과 국방위원장님의 간곡한 통일유의를 받들어 성사시키신 민족사적사변이었다.》

《백두산에 오르면 삼천리가 보이고 통일이 보인다. 백두산에서 삼천리를 한복에 뜨겁게 안아보실 때 최고령도자님의 마음속에 은 언제나 주석님과 국방위원장님의 간곡한 통일유의를 받들어 성사시키신 민족사적사변이었다.》

《백두산에 오르면 삼천리가 보이고 통일이 보인다. 백두산에서 삼천리를 한복에 뜨겁게 안아보실 때 최고령도자님의 마음속에 은 언제나 주석님과 국방위원장님의 간곡한 통일유의를 받들어 성사시키신 민족사적사변이었다.》

《백두산에 오르면 삼천리가 보이고 통일이 보인다. 백두산에서 삼천리를 한복에 뜨겁게 안아보실 때 최고령도자님의 마음속에 은 언제나 주석님과 국방위원장님의 간곡한 통일유의를 받들어 성사시키신 민족사적사변이었다.》

《백두산에 오르면 삼천리가 보이고 통일이 보인다. 백두산에서 삼천리를 한복에 뜨겁게 안아보실 때 최고령도자님의 마음속에 은 언제나 주석님과 국방위원장님의 간곡한 통일유의를 받들어 성사시키신 민족사적사변이었다.》

《백두산에 오르면 삼천리가 보이고 통일이 보인다. 백두산에서 삼천리를 한복에 뜨겁게 안아보실 때 최고령도자님의 마음속에 은 언제나 주석님과 국방위원장님의 간곡한 통일유의를 받들어 성사시키신 민족사적사변이었다.》

《백두산에 오르면 삼천리가 보이고 통일이 보인다. 백두산에서 삼천리를 한복에 뜨겁게 안아보실 때 최고령도자님의 마음속에 은 언제나 주석님과 국방위원장님의 간곡한 통일유의를 받들어 성사시키신 민족사적사변이었다.》

그날의 환희를 언제나 가슴에 안고

《백두산에 오르면 삼천리가 보이고 통일이 보인다. 백두산에서 삼천리를 한복에 뜨겁게 안아보실 때 최고령도자님의 마음속에 은 언제나 주석님과 국방위원장님의 간곡한 통일유의를 받들어 성사시키신 민족사적사변이었다.》

《백두산에 오르면 삼천리가 보이고 통일이 보인다. 백두산에서 삼천리를 한복에 뜨겁게 안아보실 때 최고령도자님의 마음속에 은 언제나 주석님과 국방위원장님의 간곡한 통일유의를 받들어 성사시키신 민족사적사변이었다.》

《백두산에 오르면 삼천리가 보이고 통일이 보인다. 백두산에서 삼천리를 한복에 뜨겁게 안아보실 때 최고령도자님의 마음속에 은 언제나 주석님과 국방위원장님의 간곡한 통일유의를 받들어 성사시키신 민족사적사변이었다.》

《백두산에 오르면 삼천리가 보이고 통일이 보인다. 백두산에서 삼천리를 한복에 뜨겁게 안아보실 때 최고령도자님의 마음속에 은 언제나 주석님과 국방위원장님의 간곡한 통일유의를 받들어 성사시키신 민족사적사변이었다.》

《백두산에 오르면 삼천리가 보이고 통일이 보인다. 백두산에서 삼천리를 한복에 뜨겁게 안아보실 때 최고령도자님의 마음속에 은 언제나 주석님과 국방위원장님의 간곡한 통일유의를 받들어 성사시키신 민족사적사변이었다.》

《백두산에 오르면 삼천리가 보이고 통일이 보인다. 백두산에서 삼천리를 한복에 뜨겁게 안아보실 때 최고령도자님의 마음속에 은 언제나 주석님과 국방위원장님의 간곡한 통일유의를 받들어 성사시키신 민족사적사변이었다.》

《백두산에 오르면 삼천리가 보이고 통일이 보인다. 백두산에서 삼천리를 한복에 뜨겁게 안아보실 때 최고령도자님의 마음속에 은 언제나 주석님과 국방위원장님의 간곡한 통일유의를 받들어 성사시키신 민족사적사변이었다.》

《백두산에 오르면 삼천리가 보이고 통일이 보인다. 백두산에서 삼천리를 한복에 뜨겁게 안아보실 때 최고령도자님의 마음속에 은 언제나 주석님과 국방위원장님의 간곡한 통일유의를 받들어 성사시키신 민족사적사변이었다.》

《백두산에 오르면 삼천리가 보이고 통일이 보인다. 백두산에서 삼천리를 한복에 뜨겁게 안아보실 때 최고령도자님의 마음속에 은 언제나 주석님과 국방위원장님의 간곡한 통일유의를 받들어 성사시키신 민족사적사변이었다.》

《백두산에 오르면 삼천리가 보이고 통일이 보인다. 백두산에서 삼천리를 한복에 뜨겁게 안아보실 때 최고령도자님의 마음속에 은 언제나 주석님과 국방위원장님의 간곡한 통일유의를 받들어 성사시키신 민족사적사변이었다.》

《백두산에 오르면 삼천리가 보이고 통일이 보인다. 백두산에서 삼천리를 한복에 뜨겁게 안아보실 때 최고령도자님의 마음속에 은 언제나 주석님과 국방위원장님의 간곡한 통일유의를 받들어 성사시키신 민족사적사변이었다.》

《백두산에 오르면 삼천리가 보이고 통일이 보인다. 백두산에서 삼천리를 한복에 뜨겁게 안아보실 때 최고령도자님의 마음속에 은 언제나 주석님과 국방위원장님의 간곡한 통일유의를 받들어 성사시키신 민족사적사변이었다.》

위인 칭송의 열풍

《백두산에 오르면 삼천리가 보이고 통일이 보인다. 백두산에서 삼천리를 한복에 뜨겁게 안아보실 때 최고령도자님의 마음속에 은 언제나 주석님과 국방위원장님의 간곡한 통일유의를 받들어 성사시키신 민족사적사변이었다.》

《백두산에 오르면 삼천리가 보이고 통일이 보인다. 백두산에서 삼천리를 한복에 뜨겁게 안아보실 때 최고령도자님의 마음속에 은 언제나 주석님과 국방위원장님의 간곡한 통일유의를 받들어 성사시키신 민족사적사변이었다.》

《백두산에 오르면 삼천리가 보이고 통일이 보인다. 백두산에서 삼천리를 한복에 뜨겁게 안아보실 때 최고령도자님의 마음속에 은 언제나 주석님과 국방위원장님의 간곡한 통일유의를 받들어 성사시키신 민족사적사변이었다.》

《백두산에 오르면 삼천리가 보이고 통일이 보인다. 백두산에서 삼천리를 한복에 뜨겁게 안아보실 때 최고령도자님의 마음속에 은 언제나 주석님과 국방위원장님의 간곡한 통일유의를 받들어 성사시키신 민족사적사변이었다.》

《백두산에 오르면 삼천리가 보이고 통일이 보인다. 백두산에서 삼천리를 한복에 뜨겁게 안아보실 때 최고령도자님의 마음속에 은 언제나 주석님과 국방위원장님의 간곡한 통일유의를 받들어 성사시키신 민족사적사변이었다.》

《백두산에 오르면 삼천리가 보이고 통일이 보인다. 백두산에서 삼천리를 한복에 뜨겁게 안아보실 때 최고령도자님의 마음속에 은 언제나 주석님과 국방위원장님의 간곡한 통일유의를 받들어 성사시키신 민족사적사변이었다.》

《백두산에 오르면 삼천리가 보이고 통일이 보인다. 백두산에서 삼천리를 한복에 뜨겁게 안아보실 때 최고령도자님의 마음속에 은 언제나 주석님과 국방위원장님의 간곡한 통일유의를 받들어 성사시키신 민족사적사변이었다.》

《백두산에 오르면 삼천리가 보이고 통일이 보인다. 백두산에서 삼천리를 한복에 뜨겁게 안아보실 때 최고령도자님의 마음속에 은 언제나 주석님과 국방위원장님의 간곡한 통일유의를 받들어 성사시키신 민족사적사변이었다.》

《백두산에 오르면 삼천리가 보이고 통일이 보인다. 백두산에서 삼천리를 한복에 뜨겁게 안아보실 때 최고령도자님의 마음속에 은 언제나 주석님과 국방위원장님의 간곡한 통일유의를 받들어 성사시키신 민족사적사변이었다.》

《백두산에 오르면 삼천리가 보이고 통일이 보인다. 백두산에서 삼천리를 한복에 뜨겁게 안아보실 때 최고령도자님의 마음속에 은 언제나 주석님과 국방위원장님의 간곡한 통일유의를 받들어 성사시키신 민족사적사변이었다.》

《백두산에 오르면 삼천리가 보이고 통일이 보인다. 백두산에서 삼천리를 한복에 뜨겁게 안아보실 때 최고령도자님의 마음속에 은 언제나 주석님과 국방위원장님의 간곡한 통일유의를 받들어 성사시키신 민족사적사변이었다.》

《백두산에 오르면 삼천리가 보이고 통일이 보인다. 백두산에서 삼천리를 한복에 뜨겁게 안아보실 때 최고령도자님의 마음속에 은 언제나 주석님과 국방위원장님의 간곡한 통일유의를 받들어 성사시키신 민족사적사변이었다.》

김영민(필자는 재중동포임)

《백두산에 오르면 삼천리가 보이고 통일이 보인다. 백두산에서 삼천리를 한복에 뜨겁게 안아보실 때 최고령도자님의 마음속에 은 언제나 주석님과 국방위원장님의 간곡한 통일유의를 받들어 성사시키신 민족사적사변이었다.》

《백두산에 오르면 삼천리가 보이고 통일이 보인다. 백두산에서 삼천리를 한복에 뜨겁게 안아보실 때 최고령도자님의 마음속에 은 언제나 주석님과 국방위원장님의 간곡한 통일유의를 받들어 성사시키신 민족사적사변이었다.》

《백두산에 오르면 삼천리가 보이고 통일이 보인다. 백두산에서 삼천리를 한복에 뜨겁게 안아보실 때 최고령도자님의 마음속에 은 언제나 주석님과 국방위원장님의 간곡한 통일유의를 받들어 성사시키신 민족사적사변이었다.》

《백두산에 오르면 삼천리가 보이고 통일이 보인다. 백두산에서 삼천리를 한복에 뜨겁게 안아보실 때 최고령도자님의 마음속에 은 언제나 주석님과 국방위원장님의 간곡한 통일유의를 받들어 성사시키신 민족사적사변이었다.》

《백두산에 오르면 삼천리가 보이고 통일이 보인다. 백두산에서 삼천리를 한복에 뜨겁게 안아보실 때 최고령도자님의 마음속에 은 언제나 주석님과 국방위원장님의 간곡한 통일유의를 받들어 성사시키신 민족사적사변이었다.》

《백두산에 오르면 삼천리가 보이고 통일이 보인다. 백두산에서 삼천리를 한복에 뜨겁게 안아보실 때 최고령도자님의 마음속에 은 언제나 주석님과 국방위원장님의 간곡한 통일유의를 받들어 성사시키신 민족사적사변이었다.》

《백두산에 오르면 삼천리가 보이고 통일이 보인다. 백두산에서 삼천리를 한복에 뜨겁게 안아보실 때 최고령도자님의 마음속에 은 언제나 주석님과 국방위원장님의 간곡한 통일유의를 받들어 성사시키신 민족사적사변이었다.》

《백두산에 오르면 삼천리가 보이고 통일이 보인다. 백두산에서 삼천리를 한복에 뜨겁게 안아보실 때 최고령도자님의 마음속에 은 언제나 주석님과 국방위원장님의 간곡한 통일유의를 받들어 성사시키신 민족사적사변이었다.》

《백두산에 오르면 삼천리가 보이고 통일이 보인다. 백두산에서 삼천리를 한복에 뜨겁게 안아보실 때 최고령도자님의 마음속에 은 언제나 주석님과 국방위원장님의 간곡한 통일유의를 받들어 성사시키신 민족사적사변이었다.》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계승한 자주통일강령

오늘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투쟁의 앞길에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변영으로 향한 새로운 리정표가 세워져있다. 지난 4월 27일 온 겨레와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판문점에서는 력사적인 제3차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이 진행되었으며 세계를 이어 지속되어오는 분렬의 비극을 종식시키고 민족적화해와 평화변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열어가며 북남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나갈 의지를 담은 판문점선언이 채택되었다.

장장 70여년세월 분렬과 대결의 상징, 원한과 눈물의 대명사로 불리워왔던 판문점에서 의의깊은 상봉과 회담이 진행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변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이 채택된 것은 북남관계와 통일위업의 앞길에 밝은 전망을 펼쳐준 민족사적인 사변이다.

지금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력사적인 판문점선언을 높이 받들고 그를 철저히 리행함으로써 자주통일과 평화변영의 밝은 앞길을 열어갈 열의에 충만되어있다.

판문점선언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계승한 새로운 력사적시대의 자주통일강령이다.

6.15공동선언은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북남관계를 개선하며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불멸의 자주통일대강이다. 10.4선언은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을 재확인한데 기초하여 선언을 전면적으로 리행하기 위한 실천과제들을 뚜렷이 명시한 자주통일시대의 행동지침이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관통되어있는 우리 민족끼리는 투철한 민족자주, 민족단합의 리념으로서 이미 조국통일

운동실천에서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남김없이 파시되었다.

력사적인 판문점선언에서 북과 남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채택된 북남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리행함으로써 관계개선과 발전의 전환적극면을 열어나갈것을 약속하였다.

판문점선언은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 자주성의 원칙을 핵으로 하고 있으며 온 민족의 의사와 념원에 맞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국제사회의 지향에 부합되는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민족공동의 강령인것으로 하여 온 겨레의 열렬한 지지찬동을 받고있다.

판문점선언은 북과 남이 뜻과 힘을 합쳐 민족화합의 새 력사, 평화변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갈것을 온 세상에 선포한 력사적인 선언이다.

북과 남이 뜻과 힘을 합치는것은 조국통일을 위한 선결조건이며 그것을 떠나 자주통일, 평화변영에 대해 생각할수 없다. 민족분렬의 력사는 북과 남이 불신하고 대결하여 얻어올것이란 분렬의 지속이고 참혹한 재난밖에 없다는 뼈저린 교훈을 새겨주었다.

우리 겨레가 나아갈 길은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민족자주의 길, 민족단합의 길이며 북과 남이 뜻과

힘을 합치는것은 민족의 화합과 평화변영을 이룩하기 위한 기본 방도이다. 판문점선언은 북남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하여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평화변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나갈것을 확약함으로써 민족화합의 새 력사, 평화변영의 새시대를 펼칠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놓았다.

판문점선언은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가시고 군사적긴장을 완화하여 온 겨레가 바라는 평화와 안전의 새봄을 마련한 위대한 선언이다.

조선반도의 군사적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해소하는것은 민족의 운명과 관련되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며 우리 겨레의 평화롭고 안정된 삶을 보장하기 위한 관건적인 문제이다.

북과 남이 판문점선언을 통해 조선반도의 참예한 군사적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나갈것을 천명함으로써 오랜 세월 대결의 행기가 서러웠던 이 땅에는 마침내 평화의 기쁨이 감돌게 되었다.

조선반도에서 비정상적인 현재의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것은 더 이상 미룰수 없는 력사적과제이다. 북과 남은 판문점선언에서 조선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나갈 의지를 확약하였다.

판문점선언이야말로 조선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고 국제정치흐름에 커다란 지각변동을 가져온 중대한 선언이다.

력사적인 판문점선언을 성실히 리행해나가는 길에 북남관계의 발전과 조선반도의 평화, 자주통일의 밝은 래일이 있다.

《백두산에 오르면 삼천리가 보이고 통일이 보인다. 백두산에서 삼천리를 한복에 뜨겁게 안아보실 때 최고령도자님의 마음속에 은 언제나 주석님과 국방위원장님의 간곡한 통일유의를 받들어 성사시키신 민족사적사변이었다.》

《백두산에 오르면 삼천리가 보이고 통일이 보인다. 백두산에서 삼천리를 한복에 뜨겁게 안아보실 때 최고령도자님의 마음속에 은 언제나 주석님과 국방위원장님의 간곡한 통일유의를 받들어 성사시키신 민족사적사변이었다.》

《백두산에 오르면 삼천리가 보이고 통일이 보인다. 백두산에서 삼천리를 한복에 뜨겁게 안아보실 때 최고령도자님의 마음속에 은 언제나 주석님과 국방위원장님의 간곡한 통일유의를 받들어 성사시키신 민족사적사변이었다.》

《백두산에 오르면 삼천리가 보이고 통일이 보인다. 백두산에서 삼천리를 한복에 뜨겁게 안아보실 때 최고령도자님의 마음속에 은 언제나 주석님과 국방위원장님의 간곡한 통일유의를 받들어 성사시키신 민족사적사변이었다.》

《백두산에 오르면 삼천리가 보이고 통일이 보인다. 백두산에서 삼천리를 한복에 뜨겁게 안아보실 때 최고령도자님의 마음속에 은 언제나 주석님과 국방위원장님의 간곡한 통일유의를 받들어 성사시키신 민족사적사변이었다.》

《백두산에 오르면 삼천리가 보이고 통일이 보인다. 백두산에서 삼천리를 한복에 뜨겁게 안아보실 때 최고령도자님의 마음속에 은 언제나 주석님과 국방위원장님의 간곡한 통일유의를 받들어 성사시키신 민족사적사변이었다.》

《백두산에 오르면 삼천리가 보이고 통일이 보인다. 백두산에서 삼천리를 한복에 뜨겁게 안아보실 때 최고령도자님의 마음속에 은 언제나 주석님과 국방위원장님의 간곡한 통일유의를 받들어 성사시키신 민족사적사변이었다.》

《백두산에 오르면 삼천리가 보이고 통일이 보인다. 백두산에서 삼천리를 한복에 뜨겁게 안아보실 때 최고령도자님의 마음속에 은 언제나 주석님과 국방위원장님의 간곡한 통일유의를 받들어 성사시키신 민족사적사변이었다.》

《백두산에 오르면 삼천리가 보이고 통일이 보인다. 백두산에서 삼천리를 한복에 뜨겁게 안아보실 때 최고령도자님의 마음속에 은 언제나 주석님과 국방위원장님의 간곡한 통일유의를 받들어 성사시키신 민족사적사변이었다.》

《백두산에 오르면 삼천리가 보이고 통일이 보인다. 백두산에서 삼천리를 한복에 뜨겁게 안아보실 때 최고령도자님의 마음속에 은 언제나 주석님과 국방위원장님의 간곡한 통일유의를 받들어 성사시키신 민족사적사변이었다.》

《백두산에 오르면 삼천리가 보이고 통일이 보인다. 백두산에서 삼천리를 한복에 뜨겁게 안아보실 때 최고령도자님의 마음속에 은 언제나 주석님과 국방위원장님의 간곡한 통일유의를 받들어 성사시키신 민족사적사변이었다.》

《백두산에 오르면 삼천리가 보이고 통일이 보인다. 백두산에서 삼천리를 한복에 뜨겁게 안아보실 때 최고령도자님의 마음속에 은 언제나 주석님과 국방위원장님의 간곡한 통일유의를 받들어 성사시키신 민족사적사변이었다.》

《백두산에 오르면 삼천리가 보이고 통일이 보인다. 백두산에서 삼천리를 한복에 뜨겁게 안아보실 때 최고령도자님의 마음속에 은 언제나 주석님과 국방위원장님의 간곡한 통일유의를 받들어 성사시키신 민족사적사변이었다.》

《백두산에 오르면 삼천리가 보이고 통일이 보인다. 백두산에서 삼천리를 한복에 뜨겁게 안아보실 때 최고령도자님의 마음속에 은 언제나 주석님과 국방위원장님의 간곡한 통일유의를 받들어 성사시키신 민족사적사변이었다.》

《백두산에 오르면 삼천리가 보이고 통일이 보인다. 백두산에서 삼천리를 한복에 뜨겁게 안아보실 때 최고령도자님의 마음속에 은 언제나 주석님과 국방위원장님의 간곡한 통일유의를 받들어 성사시키신 민족사적사변이었다.》

《백두산에 오르면 삼천리가 보이고 통일이 보인다. 백두산에서 삼천리를 한복에 뜨겁게 안아보실 때 최고령도자님의 마음속에 은 언제나 주석님과 국방위원장님의 간곡한 통일유의를 받들어 성사시키신 민족사적사변이었다.》

《백두산에 오르면 삼천리가 보이고 통일이 보인다. 백두산에서 삼천리를 한복에 뜨겁게 안아보실 때 최고령도자님의 마음속에 은 언제나 주석님과 국방위원장님의 간곡한 통일유의를 받들어 성사시키신 민족사적사변이었다.》

《백두산에 오르면 삼천리가 보이고 통일이 보인다. 백두산에서 삼천리를 한복에 뜨겁게 안아보실 때 최고령도자님의 마음속에 은 언제나 주석님과 국방위원장님의 간곡한 통일유의를 받들어 성사시키신 민족사